

AUTHOR 한영태

TITLE 칼빈과 웨슬리의 신학적 대화

IN 성경과 신학

Vol. 53 (2010): 45-77

logical analysis. But it was not on these gifts that he defended in forming and developing his theological ideas. His instrument of research was not logical amplification, but exegetical investigation. In one word, he was distinctly a Biblical theologian. This is Calvin gives us the keystone of dynamic power.

Those who have the knowledge of faith shall enjoy eternal and immediate communion with Christ by Holy Spirit. This is the basement without alienate from life and the motive power. therefore the Holy Scripture and the dynamic works of Holy Spirit are the power in Reformation.

Calvin struggled against secularization and an worldly theory. and His positive and creative affect on the world was from the Word of God.

Calvin's works from biblical principle made the church reformed as well as set out to order education, social affairs, civil law, economic system and personal life. His teaching of a real faith and piety gives "transformation and satisfaction" then and now. Still it breaks an inertia and births the hope of transformation.

"Ecclesia reformata, quia semper reformanda."

Key-Words : Calvin, Calvinism, Reformation, transformative dynamics

칼빈과 웨슬리의 신학적 대화*

Theological Dialogue between Calvin and Wesley

한영태 박사 (Han, Young-Tae)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조직신학, Ph.D., D.D.)



칼빈신학과 웨슬리신학은 둘 다 종교개혁의 3대원리인 '은혜만으로', '믿음만으로', 그리고 '성서만으로'를 굳게 고수하면서, 루터신학과 함께 개신교 신학의 큰 기둥과 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칼빈신학의 장로교회와 웨슬리신학의 감리교회와 성결교회가 개신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두 신학은 한국 개신교 신학의 양대 기둥이라 할 수 있다.

구원론에 있어서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든 원칙과,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진리에 대하여 칼빈이나 웨슬리는 일치한다. 그러나 은혜의 작용방식에서 양자는 "머리카락 하나의 차이"(within a hair's breadth)는 있다고 웨슬리는 말하였다.

루터는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가톨릭과 투쟁하였고, 칼빈은 루터의 업적을 수용하면서 구원자 하나님에 집중하였고, 웨슬리는 두 선배의 신학을 수용하면서 구원의 대상인 인간에게 관심을 집중하였다. 세 사람의 중심주제가 모이면 구원론이 완성된다. 즉 절대자 하나님은(칼빈) 자신이 정한 방식에 따라서(루터) 인간을(웨슬리) 구원하신다. 루터와 칼빈과 웨슬리의 신학을 이와 같이 이해해야 개신교회의 신학을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신학은 하나의 신학이지 절대적인 신학이 될 수 없다. 자기의 신학이

나 교리를 절대화할 때 교조주의가 나타나며 독선의 위험이 도사린다. 기독교의 기본원리나 교리에 일치한다면 의견의 차이는 서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복음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의 신학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과 목회철학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신학에 대한 우월의식을 가지거나, 또는 나와 다른 신학을 배격하거나 비난하거나 심지어 정죄해서는 안 된다.

주제어 : 하나님의 절대권, 인간의 자유의지, 일반은총과 선행은총, 신단동설과 복음적 신인합동설, 예정론, 성화

1. 시작하면서

기독교는 원래 하나였다. 초대교회는 5개의 대교구(로마,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각각 대주교(대감독)가 자기의 교구를 관할하였다. 그러다가 공식적으로는 1054년에 로마 가톨릭교회와 동방정교회로 분리되어 두 개의 기독교파가 되었으며,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운동 이후에 개신교회가 탄생하여 3개의 큰 기독교파가 존재하게 되었다. 분리된 이 후에는 서로 다른 관점과 주장으로 인해 신학적 입장도 달라졌다. 개신교회에는 많은 교파들이 존재하지만, 그들의 신학은 대체로 16세기 루터(1483-1546)와 칼빈(1509-1564) 그리고 18세기 웨슬리(1703-1791)의 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칼빈신학과 웨슬리신학은 둘 다 개신교 복음주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둘 다 종교개혁의 3대원리인 ‘은혜만으로’, ‘믿음만으로’, 그리고 ‘성서만으로’를 굳게 고수하면서, 루터신학과 함께 개신교 신학의 큰 기둥과 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칼빈신학의 장로교회와 웨슬리신학의 감리교회와 성결교회가 개신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두 신학은 한국 개신교 신학의 양대 기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가끔씩 두 신학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고 서로를 비난하는 일이

교회나 신학교 강단에서 일어나곤 한다. 이런 일은 웨슬리 시대에도 있었다. 즉 웨슬리와 핏필드 사이에 있었던 예정론에 대한 논쟁이 바로 그것이며, 이 논쟁은 Holy Club에서부터 신앙의 동지였던 두 사람을 갈라 놓고 말았다. 그 후 둘은 인간적으로 화해는 했지만 신학적인 논쟁점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이런 일은 지금도 가끔씩 일어나고 있다.

구원론에 있어서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든 원칙에 대하여 칼빈이나 웨슬리는 일치한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과, 그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진리에 대하여 두 사람은 일치한다. 이 점에서 칼빈주의와는 “머리카락 하나의 차이”(within a hair's breadth)밖에 없다고 웨슬리는 말하였다.¹ 이렇게 보면 웨슬리신학과 칼빈신학은 아주 근접하지만, 머리카락 하나 정도의 차이는 있다.

웨슬리는 의견과 기본교리를 구분하였다.² 즉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fundamental doctrine)라고 믿는 것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지만, 단순한 의견(mere opinion)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였다.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증거를 방해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웨슬리는 핏필드의 죽음에 관한 설교에서 핏필드의 칼빈주의적인 예정의 교리(predestination)와 전가된 의(imputed righteousness) 등이 자기의 의견과 상이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즉 증생과 믿음으로 얻는 칭의 등의 기본적인 교리에서 일치함으로써, 핏필드의 복음전도와 구령열을 이어가자고 하였다.³ 이처럼 예정론도 웨슬리에게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는 아니었다.

필자는 웨슬리의 정신에 따라 칼빈신학과 웨슬리신학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신학적 대화를 시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서로의 차이점을 알고, 그 배경과 근원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진정한 의

¹ Thomas Jackson, ed., *The Works of John Wesley*, 14 vols. (London: Wesleyan-Methodist Book-Room, 1831), VIII, 284 (이하 *Works*로 표기).

² Colin Williams, *John Wesley's Theology Today* (London: Epworth Press, 1960), 16.

³ Albert C. Outler ed., *The Works of John Wesley* (Abingdon Press, Nashville, 1985), The Bicentennial edition, vol. II, 82: 343-46 (조지 핏필드 목사의 서거에 즈음하여), (이하 *New Works*로 표기).

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증거와 섬김에서 공동사역을 위한 일치와 연합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모든 진정한 신학은 서로 다른 입장과 자세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의 종의로서 함께 일하고 있으며 또 함께 일해야 한다.

2. 신학의 중심 주제

2.1. 루터신학의 주제 : 구원의 방법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개혁의 선봉자로 나선 것은 아니었다. 그의 종교개혁의 발단과 동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였다. 그것은 루터 자신의 구원의 문제였다.⁴ 즉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다. 그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거룩한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는가?”라는 신학적 물음을 가지고 씨름하였다. 종교개혁은 루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두렵고 떨리는 심정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것으로부터 발단하였다. 이것은 곧 구원의 방법에 관한 질문이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루터는 그가 속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는 어거스틴과 탁발 수도원으로 들어가 여러 가지 고행의 길을 수행하였고, 로마 여행에서 그 해답을 얻으려고 애쓰기도 하였다. 그는 자신의 말처럼 훌륭한 수도사였다. “나는 훌륭한 수도사였다. 나는 내가 속했던 수도원의 규율을 너무나 철저히 지켰으므로, 만일 수도사가 수도생활로 천국에 간다면 그는 나일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만일 조금이라도 이 생활을 계속했다면...나는 죽고 말았을 것이다”라고

⁴ 지원용, 『루터와 종교개혁』 (서울: 건몰디아사, 1972), 33; William A. Scott, 김쾌상 역, 『개신교 신학사상사』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9.

⁵ Roland H. Bainton, *Here I Stand* (New York & Nashville: Abindon-Cokesbury Press, 1950), 45;

자신의 수도원생활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패였다. 그는 기대하였던 해답을 얻지 못하였고 결국 절망하였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였다. 시편(22편)을 통하여 고난받는 하나님을 발견하였고, 특히 로마서(1:17)에서 형벌적인 의(punitive justice)가 아닌 대속적 의(redemptive justice)를 발견하였다. 무서운 재판관으로 인식하던 하나님을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하나님으로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 사이의 관련성을 깨달을 때까지 밤낮으로 골똘히 생각하였다. 그러던 중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은총과 단순한 자비를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는 바로 그 의임을 깨닫게 되었다. 여기서 나는 자신이 거듭나면서 낙원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성서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었으며, 과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증오로 가득차게 하였지만, 이제 그것은 나에게 보다 큰 사랑으로 말할 수 없이 달콤한 것이 되었다. 바울의 이 구절은 나에게 천국의 문이 되었다.”⁶ 이것이 루터가 새롭게 발견한 구원의 방법이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얻는다는 것인데 이는 성서가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이다.

루터는 자신의 경험을 신학적으로 정리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개신교회가 기초하고 있는 세 가지 원리 즉 은총의 원리(only grace), 신앙의 원리(only faith),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only Bible)이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요 선물이라는 점에서 ‘은총만으로’, 인간적인 모든 업적(선행)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신앙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구원의 소식(방법)을 발견한다는 점에서 ‘성서만으로’ 가능하다는 원리이다. 이것은 루터가 천주교회의 잘못된 구원의 방법을 성서적으로 올바르게 정립하였음을 의미한다. 루터는 일생동안 이 세 가지 원리를 명료화하고, 정식화하고, 변호하고, 전파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Scott, 10-11에서 재인용.

⁶ Scott, 『개신교 신학사상사』, 18.

2.2. 칼빈신학의 주제 : 구원자 하나님

루터보다 26년 뒤에 태어난 칼빈은 루터의 사역의 후반기에 자신의 개신교회 사역을 본격적으로 제네바에서 시작하였다. 칼빈은 종교개혁의 선봉장인 루터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므로 칼빈의 신학의 기본 사상은 대부분 루터와 일치한다. 칼빈은 루터가 정립한 구원의 방법과 신학의 3대원리를 수용하면서, 그 기초 위에 자신의 신학작업을 수행하여 구원자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수립하였다.

루터의 신학이 '구원의 방법'이 주제라면, 칼빈은 '구원자 하나님'이 신학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루터의 구원의 방법을 전제하고서, 이 구원의 방법에 따라서 '누가 나를 구원하느냐?' 는 것이 그 다음 질문일 수밖에 없다. 그 해답은 당연히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며, 그 분은 은혜와 믿음으로 죄인을 구원하신다'이며, 이것이 칼빈신학의 중심이다. 그리하여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사고가 칼빈의 사상의 중심이었으며, 칼빈과 루터를 특징적으로 구분시켜 준 것이 바로 이 점이었다. 일반적으로 칼빈주의를 '하나님 중심의 신학'(God centered theology)⁷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칼빈의 '신 중심의 신학'은 자연스레 세 가지 기본적인 개념으로 연결되는데 즉 1) 하나님의 절대주권, 2)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3) 예정론이다.⁸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칼빈신학의 기본개념이며, 하나님의 존엄성, 초월성, 그리고 절대성을 강조하면서 주권적인 통치와 은혜를 강조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계와 그 안의 모든 존재의 목적으로 인간도 이 목적에 따라 살아야 한다. 인간의 구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부분이다. 예정론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개념을 인간 구원에 적용할 때 논리적으로 귀결되는 원리이다.

⁷ 김재성, 『개혁신학의 광택』 (이레서원, 2001), 53; 이오갑, 『칼빈의 신중심주의와 한국교회』, 『한국조직신학논총』 23집 (한국조직신학회 편, 2009), 43.

⁸ Scott, 『개신교 신학사상사』, 58.

2.3. 웨슬리신학의 주제 : 구원의 대상 (인간)

루터의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라는 질문과 칼빈의 '누가 나를 구원하는가?'라는 질문에 이은 다음 질문은 '누가 구원받습니까?'라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웨슬리의 신학이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따라서 구원의 대상인 '인간이 무엇이나?'라는 것이 웨슬리신학의 특징이며 중심주제가 된다.

루터와 칼빈의 사상에서는 현재 인간에 대하여 비판주의가 나타난다. 즉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며, 영적으로 죽은 자이며, 선을 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자이며, 사망의 죄책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이다. 웨슬리는 현재 인간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견해를 가진다. 이는 자연적인 인간 자신에 대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가지는 낙관주의다.⁹ 웨슬리는 종교개혁자들들과 같이 인간의 전적타락을 주장하지만, 그러나 현재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선행적(예비적, 선제적) 은총(prevenient, preventing, preliminary grace)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자연인'(natural man)은 없다고 보았다. 은총 안에서의 낙관주의가 비판주의를 극복한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인간에게 희망을 가진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웨슬리는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한다. 선행은총에 의해 인간의 의지의 자유는 어느 정도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은총에 의해서 인간은 책임적 존재가 되었으므로 구원에 있어서도 인간은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가 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호의적으로 응답하면 구원을 얻고 거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때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수동적으로 응답할 수 있고 또 응답해야 한다.¹⁰

⁹ 조종남, 『요한 웨슬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4), 168-69.

¹⁰ 한국웨슬리학회 편, 『웨슬리 설교전집 6』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65 (설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함에 있어서), 이 설교에 구원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주도권과 인간의 응답의 필요성이 잘 나타나 있다.

은총 안에서 인간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웨슬리의 사상은 인간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성서적으로 새로운 발견이며, 당시의 인본주의자들과 구분된다. 인본주의자들은 ‘은총 안에서’가 아닌 ‘자연적인’ 인간의 능력과 책임을 강조하였다. 웨슬리신학이 인간을 강조하지만 인본주의 신학이 아니라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점이다.

3. 신학에서 강조점과 차이점들

3.1. 하나님의 절대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3.1.1. 칼빈 : 하나님의 절대권 강조 : 16세기 전제군주시대의 인식

루터의 관심은 인간의 구원문제 그 중에서도 구원의 방법에 집중되었다면, 칼빈의 관심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었다. 루터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하시는 일이라면, 칼빈은 하나님 자신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루터에게서 인간을 의롭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이 칼빈에게는 의롭다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관심의 초점이 바뀌게 되었다.

필자는 하나님의 절대권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기인한다고 해석한다. 칼빈은 16세기의 사람이며(1509-1564), 16세기는 유럽에서 민족주의의 대두와 함께 새로운 전제군주제도가 성장하던 시기였다. 16세기 초부터 가장 눈에 띄는 정치적 현상은 근대 국가의 탄생이다. 이 시기는 중세의 봉건주의에서 근대의 중앙집권적인 왕정국가로 전환하는 분기점이었다. 각 민족을 중심으로 왕권이 크게 강화된 군주국가가 형성되었다.¹¹ 전제군주국가에서는 왕이 최고의 권력자이며 절대권을 가진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므로 당연히 최상의 절대자요, 최대의 절대권

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개념이 칼빈의 신관에 영향을 주었으며, 또 당시의 일반인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신관이었다고 생각한다.

거기다가 이미 쇠퇴하여 영향력이 약화되었지만, 교황청이 주장하는 교황권 역시 아직은 세속권력에 대항하여 절대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교황보다 높은 분이라면 당연히 절대자가 될 수밖에 없다. 교황권과 싸우던 칼빈이 하나님을 최고 절대자로서 교황조차도 다스리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은 자연스런 귀결로 볼 수 있다.

칼빈의 역서 『기독교 강요』가 당시 프랑스 왕에게 바쳐진 책이라는 사실도 칼빈의 신관의 일면을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기독교 강요』는 “지극히 위대하시고 지극히 영명하시며...지극히 영광스런 왕이시여”로 시작하고 있다.¹² 지상의 왕에 대한 이해가 이 정도라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절대자’로 보는 것은 자연스런 귀결로 보여진다.

3.1.2. 웨슬리 : 인간의 자유의지 강조 :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인식

웨슬리는 칼빈보다 약 200년 뒤 18세기의 사람이며(1703-1791), 이 시대는 계몽주의 시대였다. 서양의 역사에서 18세기는 보통 “계몽사상(enlightenment)의 시대”로 일컬어진다.¹³ 오랜 황혼 속에서 마침내 유럽인들이 벗어난 시기였다. 유럽인들은 오랜 전통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심지어 교회와 기독교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대신에 인간 이성과 과학의 힘을 확신하고, 자연의 규칙성과 조화를 굳게 믿고, 문명의 발전과 진보 사상에 깊이 몰두했던 시기였다. 인간의 이성을 위시한 인간정신의 본래적 능력에 대한 신념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즉 인간이 인간 자신에 대한 재발견과 함께 인간이 인간을 깨우치던 시기라 할 것이다. 근대 서양의 과학과 철학이 태동하고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또한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전제군주시대가 막을 내리고, 민주주의가

¹² John Calvin,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5), 9 (이하 *Institutes*로 표기).

¹³ R. R. 파머, J. 콜튼 공저, 강준영 외 공역, 『서양근대사』 2: 『계몽사상에서 민주국가의 발전까지』 (도서출판 삼지연: 1988), 7.

¹¹ 후스토 L. 콘잘레스, 이형기·차중순 역, 『기독교사상(III)』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1989), 26-28; W. 워커, 강근환 외 역, 『세계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5), 239ff.

획기적으로 발전한 시기였다. 따라서 '민주혁명(democratic revolution)의 시기'였다. 특히 영국은 의회의 권한이 크게 신장된 시기였다.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는 인간은 그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에 대하여 타고난 권리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의 허락을 받아 정부가 세워져야 한다고 하였다.¹⁴ 유럽의 도처에서 자유와 평등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일어났다. 인민은 계급이 없으며, 따라서 귀족과 평민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자각이 일어났다.¹⁵

그리고 이 시기는 '산업혁명'의 시기였다. 원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곧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산업혁명은 기존의 생산수단에 변화와 함께 사회 구조에도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였다. 자본을 축적한 신흥자본가들을 중심으로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자연히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자각과 주장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웨슬리가 태어나고 활동하였다. 웨슬리의 시대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던 시대였다. 이전의 권위적인 제도나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 시대가 열리던 시기였다. 전제군주 시대에는 왕은 절대자였으며, 왕의 말과 뜻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시대에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하며, 개인의 의지(선택)가 중요하다. 이러한 시대적인 인식이 웨슬리의 신학 특히 그의 하나님과 인간 이해에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으며, 인간은 하나님과 협력하는 존재라고 이해한 것이다.

3.2. 일반은총과 선행은총

3.2.1. 칼빈: 일반은총(common grace)

칼빈의 은혜관은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은총은 공공적(communal)인 은혜로 죄인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은혜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주시는 것

¹⁴ 워커, 『세계기독교회사』, 358.

¹⁵ 워커, 49ff.

과 같다. 일반은총은 죄의 파괴적인 세력을 억제하며, 어느 정도 우주의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며, 따라서 질서있는 사회생활을 가능케 하며,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분배하며, 과학과 예술을 발전시키며, 그 외에도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축복을 가능케 한다.¹⁶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보통은혜'라고도 한다. 일반은총은 a) 성령이 마음을 갱신함이 없이 그의 일반 또는 특별계시를 통하여 사람을 도덕적으로 감화시킴으로 죄가 억제되고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세속적(시민적) 의가 촉진되는 성령의 일반적 사역들, b)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이 나누어 주시는 비와 햇빛, 마실 물과 음식, 의복과 주택과 같은 일반적인 축복들이다.¹⁷ 그러므로 일반은총은 일반선리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일반은총은 일반계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¹⁸ 칼빈은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본성적으로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지식은 선형적이며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새겨진 도덕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본유적 지식 즉 일반계시에 속한다. 이 본유적인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풍성한 계시를 보게 한다. 그러므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¹⁹

일반은총은 또한 일반적(보편적) 부르심(소명)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일반적 소명은 죄인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일반적 소명은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 심지어 하나님께서 구주가 되시어 죽음으로부터 벗

¹⁶ 루이스 벨콕, 고영민 역, 『벨콕 조직신학』, 제5권 『구원론』 (서울: 기독교문사, 1981), 47.

¹⁷ 벨콕, 51.

¹⁸ 도널드 K. 맥키 외 공역, 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칼빈에 관한 신학논문』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6), 97.

¹⁹ W. Gary Crampton, 박일민 역, 『칼빈의 신학』 (도서출판 그리심, 2003), 29; Institutes, 1. 3. 1; 4. 20. 16; 1. 5. 1, 2.

어나도록 붙들어 주시는 자들과... 때로는 엄격한 정죄에 이르도록 하시는 자들- 말씀의 외적인 전파를 통해서 똑같이 자신에게로 부르시는 일반적 부르심²⁰을 가리킨다. 이런 보편적 소명은 멸망받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주어질 때 그것은 다만 '죽음의 맛'으로서 '보다 무거운 저주의 기회'로서 주어지는 것뿐이다.²¹

칼빈에게 구원은 특수한 부르심(소명) 또는 특별은총으로만 가능하다. 이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다. 이 소명은 제한적이며 불가항력적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는 좋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받아들여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배척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만을 선택하게 하신다."²² 특수한 소명은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는 자에만 주어진다.²³

3.2.2. 웨슬리 : 선행은총(prevenient grace)

칼빈의 일반은총과 같은 개념이 웨슬리의 선행은총이다. 즉 햇빛과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주시는 일반적 은혜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이끄심이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입니다. 곧 우리가 열망하면 할수록 그 열망은 더욱 증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행적 은총이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계몽시키는 참 빛을 말합니다. 곧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도록 하는 것입니다(미가 6:8)"²⁴ 선행적 은총은 일반은총과 같이 만민에게 골고루 주시는 보편적 은총이다.

그러나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 칼빈의 일반은총에는 타락한 인간의 부분적인 회복의 개념이 없으나, 웨슬리의 선행은총에는 부분 회복의 개념이 있다. 두 신학에서 이런 차이가 구원론에서 엄청난 상이점을 가져온다. 선행은총이 인간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알면 왜 구원론에서 칼빈과 웨슬리가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다. 선행은총은 먼저 깨달음을 촉발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 다음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리고 양심과 이성과 의지의 자유 등을 회복시켜 주었다.²⁵

그 결과 인간은 자유의지의 결단으로 구원으로 향하는 마음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게 되었다. 즉 인간은 자기의 구원에 대하여 은총 안에서 책임적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하여 칼빈과 웨슬리의 대답은 서로 다르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웨슬리에 의하면 인간이 그들의 자유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책임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웨슬리는 "구원은 보통으로 말하는 선재은총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생명으로 나가는 첫걸음이며 어느 정도의 구원의 시작이다"²⁶ 선행은총은 구원을 위한 예비은총이며, 실지로 구원으로 이끄는 은총이다. 그러나 선행은총은 구원을 위한 충분한 은총은 아니다.

칼빈에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 그런데 웨슬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행은총은 창조에서 이미 표현된 원래적 은총(original grace)이다. 이에 대하여 와인쿱은 "창조의 배경은 삼위 신격중 제2격을 통하여 표현된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이다-이것이 은총이다-. 이는 원죄에 선

²⁰ Institutes, 3. 24. 8.

²¹ Institutes, 3. 24. 8.

²² Institutes, 3. 3. 13.

²³ 유헤부, 『개혁신학』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441.

²⁴ New Works, vol. 2, 157 (설교: 성서적 구원의 방법).

²⁵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2), 114-15.

²⁶ New Works, 3: 202 (설교: 우리자신의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행하며, 그것을 앞지른 원래적 은총이다. 우리의 신학적 용어로 선행적 은총이라 불리는 이 은총은 뒤늦은 생각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시작부터 끝까지 인류 역사의 모든 단계에 걸친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분출이다”라고 하였다.²⁷

3.3. 신 단동설(monergism)과 복음적 신인협동설 (evangelical synergism)

3.3.1. 칼빈: 신 단동설

칼빈은 완전타락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함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범죄함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즉 타락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일어난 현상은 아담이 본래적으로 가졌던 초자연적인 은사는 상실하였지만, 자연적인 은사는 부패하였다.²⁸ 잃어버린 초자연적 은사는 영원한 축복을 받기에 필요한 신앙과 본래적인 완전한 모습이었다. 반면에 자연적인 은사는 지성과 의지인데 타락으로 인하여 부패하였지만, 인간에게 여전히 남겨져있다.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너무나도 심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소름 끼칠 정도로 왜곡되어 있다. 인간은 선을 선택할 가능성을 상실했다. 왜냐하면 윤리적 형상은 전적으로 부패하였기에 인간의 모든 욕망은 계속해서 악을 선택하고 행한다.²⁹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이다.

이제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그의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오직 은혜만으로’의 원리를 낳게 되었다. 하나

²⁷ 밀드레드 와이클, 한영태 역, 『칼빈주의와 웨슬레신학』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43.

²⁸ *Institutes*, 2. 2. 12.

²⁹ *Institutes*, 1. 15. 8; 2. 2. 26, 27.

님께서 먼저 인간을 만드시고 축복하셨듯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인간에게 소망은 없다. 창조와 섭리에서 절대적 주권자인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도 절대적 주권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교리이다.³⁰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은 인간이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가와 상관없이 나타난다. 인간의 죄와 죄책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또한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 “내적소명(오직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시는)은 거부되어질 수가 없다. 그것은 항상 회개를 가져온다...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도무지 거부할 수 없으며, 또한 그것이 미쳐지는 사람들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³¹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부여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사람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와 그 은혜의 불가항력성은 인간의 무능력성과 함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진다는 논리적 결론을 가져오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 단동설(monergism)’이라고 한다.

3.3.2. 웨슬리 : 복음적 신인협동설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원칙에서 웨슬리는 칼빈과 근본적으로 일치한다. 이 점에서 “웨슬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의 교리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부요 인간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루터-칼빈적 명제의 완전한 재생이다.”³² 그러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어지며, 선행은총은 완전 타락한 인간을 어느 정도 회복하여 응답능력을 가진 책임적인 존재가 되게 하였다는 점

³⁰ 김재성, 『개혁신학의 광맥』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1), 53.

³¹ D. 스틸, C. 토마스 공저, 김남식 역,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서울: 한국성서협회, 1975), 21. 이것은 도르트 회의에서 결정된 장로교 5대교리 중에서 4번째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 혹은 불가항력적 은총”의 일부이다.

³² G. C. Cell, *The Rediscovery of John Wesley* (Henry and Holt Co. 1935), 245.

은 칼빈과의 거리를 더욱 멀게 만들었다. 웨슬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 안에서 자유한 것이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유한 것이다.”³³ 은혜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유롭다는 점은 칼빈주의의 견해와 다르다.

만약 하나님의 은총이 만민에게 골고루 주어진다면, 왜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웨슬러의 대답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호의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그 은혜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의 주도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이론을 웨슬러안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복음적 신인협동설’이라고 한다.³⁴ 복음적 신인협동설은 결코 인간의 공로 사상이 아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회개하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공로가 될 수 없음은 그 모든 것이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수동적으로 응답한 것밖에 한 일이 없다. 즉 “인간의 의지가 성령의 사역에 수동적으로 협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주도권에 아무런 이의없이 협동한다는 것이다.”³⁵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 그리고 구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는 없고, 다만 은혜에 의해서 은혜에 응답한 것 밖에 없다. 웨슬러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도울 수 없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죄에 죄를 더할 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을 소원하게 하든지 행하게 하는 이는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다”³⁶라고 하여 이 점을 분명히 하였다.

³³ *New Works*, 3: 545 (설교: Free Grace).

³⁴ 이 용어는 Starkey가 사용하였으며, 가톨릭의 공로사상이나 펠라기우스주의의 신인협동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용어로는 은총적 협동설, 신 단동설 안에서의 협동설, 삼위일체론적 협동설 등이 있다.

³⁵ David Schiply, *Methodist Arminianism*, 223, 287: 조종남, 『요한 웨슬러의 신학』, 135에서 재인용.

³⁶ *New Works*, 403 (설교: 마음의 할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같은 수준에서 협동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칼빈주의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협력자(partner)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구원에서는 인간의 어떤 역할도 인정하지 않는다. 웨슬러의 복음적 신인협동설은 인간의 역할(공로)을 주장하는 카톨릭 사상과 은혜만으로는 주장하는 개신교 사상을 성서의 빛 안에서 절묘하게 조화시킨 이론이라 볼 수 있다. 레오 콕스는 웨슬러의 이러한 신인협동설을 신단동설로부터 나온 신인협동설(synergism born of monergism)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신인협동설인가 아니면 신단동설인가? 아마도 최선의 대답은 둘 다이다. 시작은 신단동(monergism)-하나님이 일하신다-이다. 그 다음에는 신단동설로부터 나온 신인협동설(synergism born of monergism)-사람은 일할 수 있게 능력이 주어졌다-이다.”³⁷

3.4. 예정론

3.4.1. 칼빈: 개인예정(이중예정)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신의(decree)라고 부르며,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장차 이루어질 것을 스스로 결정하셨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조건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영생으로, 어떤 이들은 영벌로 미리 정해져 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이런 목적의 어느 한 쪽으로 창조되었기에 우리는 인간이 생명 또는 죽음으로 예정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³⁸ 위와 같은 칼빈의 예정론을 이중예정(double predestination)이라고 한다. 이는 한 사람을 두 번 예정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로-선택과 유기-모든 인간을 미리 정해놓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예지에 의존하지 않는다.³⁹ 예정은 한 개인이 장차 어떻게 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의 운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신의에 의한 것이다. 유기도 마찬가지다.⁴⁰

³⁷ Leo Cox, *John Wesley's Concept of Perfection* (Beacon Hill Press, Kansas City, 1968), 45.

³⁸ *Institutes*, 3. 21. 5.

³⁹ *Institutes*, 3. 22. 5; 3. 23. 1-7.

칼빈의 예정론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섭리론이나 운명론이 아니라, 구원론에 속한다.⁴¹ 구원이 '오직 은혜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상과 '하나님의 절대권' 개념이 논리적으로 결합하면 예정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타락하여 부패하고 무능력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은 각 개인의 공로와 상관없이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 속에서 증명된다. 구원으로서의 결정은 인간이 얼마나 그럴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모든 점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즉 하나님의 뜻에만) 있다는 점에서 "선택교리는 복음적인 은총교리의 궁극적이고 필연적인 표현이다."⁴²

예정론은 그를 믿는 자에게 위로와 구원의 확신을 준다. 구원의 확실성은 곧 선택의 확실성과 관련되어 있다. 비록 선택된 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선택된 것을 어떻게 알고 확신할 수 있을까? 인간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을 아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에 대한 해답은 유효한 부르심과 그에 따른 중생이 증거이다. 중생은 유효적 소명의 결과이다.⁴³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는 모두 중생하여 새 피조물이 된 자이며...이 증거를 통해서 그의 소명을 확인한다."⁴⁴ 이러한 확신은 궁극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진다. 그리하여 택함을 받은 자는 결코 파멸에 이를 수가 없다는 확신의 삶을 살게 된다. 이 확신은 어려운 환경-신앙생활이나 일상적인 생활 모두—을 이겨낼 수 있는 원천 또는 능력이 된다.

칼빈에게 예정은 선택받은 자의 봉사과 헌신의 원천이 된다.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 땅에 하

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은 자신들의 엄숙한 의무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증표가 될 수 있다고 칼빈은 말하였다. "너희의 소명이 확실해지는 것을 보라...하나님의 자녀들은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표징에 의해서 유기된 자들과 구분된다."⁴⁵

3.4.2. 웨슬리 : 구원의 방법을 예정

칼빈주의적 예정론에 대한 웨슬리의 비판은 본질적으로 아르미니우스와 견해를 같이 한다.

웨슬리는 "예정은 절대적인 것인가 또는 조건적인 것인가? 알미니안들은 예정을 조건적인 것으로 믿었고, 칼빈주의자들은 절대적인 것으로 믿었다"⁴⁶라고 정리하였다.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예정되었다는 칼빈주의의 예정론에 반대하면서, 웨슬리는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도록 예정하셨다고 보았다. 즉 믿음이 조건이 되는 예정이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 안에 지속하게 될 자를 구원하시고, 또 불신앙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될 자들을 영멸에 처하도록 미리 마련하신 계획이라는 것이다.⁴⁷ 이 말은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미리 예정하였다는 뜻이다. 이것이 성서에 나오는 예정이라는 단어에 대한 웨슬리의 해석이다. 로마서 8:29,30을 본문으로 한 "예정에 대하여(on predestination)"라는 글에서 웨슬리는 "또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의 영원하신 결정에 따라 그들을 그런 자격으로 구원을 예정하셨다"⁴⁸라고 하였다.

이러한 웨슬리의 견해는 속죄의 보편성과 은혜의 보편성에 기인한 것

⁴⁰ Institutes, 3. 3. 24.

⁴¹ A.E. 맥그래스, 박종숙 역, 『종교개혁 사상 입문』(TJDNF: 성광문화사, 1992), 150.

⁴² 빌헬름 니이젤,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168.

⁴³ 니이젤, 『칼빈의 신학』, 171; 펠름, 『조직신학 제5권』, 121-22.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유효적 소명은 중생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칼빈주의신학에서 중생과 유효적 소명은 동시적으로 보며, 종종 동일시되기도 한다.

⁴⁴ Institutes, 3. 15. 8.

⁴⁵ 개혁자 총서 중 『칼빈전집』, 55, 450 (이종성, 『칼빈의 신학』, 178에서 재인용).

⁴⁶ Works, X: 360.

⁴⁷ Works, vi: 229.

⁴⁸ Works, vi: 229.

이다. 칼빈주의의 제한적 속죄와는 달리 웨슬리는 보편적 속죄 즉 만인 속죄설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⁴⁹ 거저 주시는 것이므로 자유하다고 하였다. 죄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 값없이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은 사람이 구원받고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그 은혜를 수용하느냐 거절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죄의 보편성과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이 메도디스트 구속교리의 하나의 주된 특징을 이루고 있다.”⁵⁰

칼빈주의의 예정론에 대한 웨슬리의 반대는 그의 시간이해로부터도 연유하였다. 어거스틴과 마찬가지로 웨슬리는 시간은 창조된 질서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하나님은 창조된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하신 분이시므로, 그에게는 과거나 미래가 모두 동시적이고 현재적이다.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를 한 순간으로 보시고...모든 시대나 나라에서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을 아신다.”⁵¹ 이러한 현재적인 예지에 의하여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3.5. 성화(성결)에 대한 해석

3.5.1. 칼빈 : 점진적 성화

칼빈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서는) 우리도 마땅히 거룩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 이 성구보다 더 좋은 기초가 있을 것인가?”⁵²라고 성결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칼빈은 회개, 중생, 칭의, 회심, 그리고 성화가 동의

어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물론 각각에 대하여 설명할 때는 혼동하지 않고 고유의 개념을 잘 제시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의 연합을 통하여 동시적이란 의미에서 동의어로 사용된다.⁵³ 그러면 서로 성화는 칭의와 구분되는 중생과 중생 이후의 성도의 삶이란 의미에서 주로 사용된다.⁵⁴

순간적이며 완결된 사건인 칭의와 동시에 중생 즉 성화는 시작한다. 이 점에서 성화는 순간적 또는 결정적이며 또한 점진적이다. 순간적 성화는 칭의와 함께 즉각적으로 성도의 신분이 변하므로 이를 ‘신분적인 성화’(position sanctification)라고도 한다.⁵⁵ 즉각적 변화를 통하여 성화는 시작하지만, 거기서부터 성도는 점차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 신자는 성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전성화는 불가능하며, 죽음 이 후에야 가능하다.⁵⁶

이렇게 점진적 성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신자 안에 아직도 죄가 남아 있으며, 일생동안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신자는 칭의와 중생에서 죄책은 용서받으나 죄성은 변화가 시작되었으나, 완전히 변화 또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거스틴의 가르침에서 나타나는 ‘두 본성의 교리’를 칼빈이 받아들인 결과이다.⁵⁷ 거듭난 신자는 옛 본성과 함께 성령에 의하여 주어진 새 본성을 가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다. 그는 진정으로 새로운 존재이지만 아직 완전히 새로운 존재는 아니다. 죄없는 새로운 성질과 부패한 옛 본성이 죽을 때까지 공존한다. 따라서 성화는 사망에 이르러서야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점진적인 과정이다. 요약하면 신자는 더 이상 옛 사람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새로워지는 새 사람이라 할 수 있다.⁵⁸

53 니젤, 『비교교회론』, 239; 니젤, 『칼빈의 신학』, 125, 136.

54 안토니 A. 후크마, 류호준 역, 『개혁주의 구원론』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0), 333.

55 후쿠마, 『개혁주의 구원론』, 338.

56 조대준, 『크리스찬의 성화』 (서울: 콤파스출판사, 2004), 235-37.

57 그레이트하우스, 『웨슬리 신학원류』, 85.

58 멜빈 디이터 편, 김원주 역, 『성화에 대한 다섯 가지 견해』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

49 Works, VII: 374 (설교: “거저주는 은혜”).

50 빌헬름 니젤, 이종성·김향안 역, 『비교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404.

51 Works, VI: 226.

52 레위기 19:2 주석, 윌리엄 M. 그레이트하우스, 김용련 역, 『웨슬리신학 원류』 (서울: 생명출, 1987), 132에서 재인용.

죽을 때까지 이 과정은 계속되어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간다.

3.5.2. 웨슬리 : 완전성화

완전성화는 웨슬리신학의 핵심이 되는 진리이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과 심지어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웨슬리는 Holy Club 시절부터 성화를 추구하면서 성화가 성서적 진리임을 확신하였다. “내가 이 교리를 어디서 인제 발견하였는지 간단명료하게 말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친구약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편견도 욕망도 없이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발견한 것이다.”⁵⁹ 웨슬리가 주장하고 가르친 성결은 성서적 성결이며 기독교가 초대부터 가르치고 간직해온 성서적 진리였다. 그러므로 웨슬리는 완전은 자신의 교리가 아니요, 사도 바울,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리고 당연히 우리 주님의 교리라고 하였다.⁶⁰

성화(성결)가 성서적 진리이기에, 기독교 역사상 어느 교회나 신학자도 이 진리를 부인한 적은 없다. 다만 그 해석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칼빈은 현세에서 완전성화는 불가능하며 사후에야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나, 웨슬리는 이 땅에서 신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능하다고 하였다. 중생한 신자가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을 깊이 자각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회개) 때 신자는 남아있는 죄성으로부터 정결함을 얻고 사랑의 충만을 얻게 된다. 이것은 중생과는 구분되는 두 번째 은혜요, 변화이며,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자는 이를 경험할 수 있다. 칭의 후에 두 번째 은혜에 의하여, 죄성이 변화되고(정결), 그 빈 마음속에 성령에 의하여 사랑의 충만을 얻게 되며, 그리고 현세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칼빈과의 차이점이다. 그러나 성화가 인간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둘 다 인정한다.⁶¹

부, 1991), 106.

⁵⁹ John Wesley, 조종남 역, 『웨슬리의 기독교 완전성에 대한 해설』 (서울: 한국복음문서간행회, 1996), 136.

⁶⁰ Wesley, 『기독교 완전성에 대한 해설』, 136.

웨슬리의 성화론은 사랑이 그 본질이다. 완전이나 성결에 대한 오해와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웨슬리는 ‘은전한 사랑’이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하였다. 심지어 그는 “완전, 성화, 제2의 은혜, 나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사용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러 이러한 때에 이런 변화를 경험했고, 하나님과 온 인류를 향한 충만한 사랑 밖에 아무 것도 느낀 것이 없다”라고 말하라고 하였다⁶². 그는 성화된다는 것은 “의와 참 성결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⁶³이라고 하였다.

성화의 본질이 사랑이므로 이것은 인간 스스로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은 사랑은 성령의 은사요 동시에 열매하고 하였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사랑은 이 두 개념 모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다. 은사와 열매는 모두 성령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인 사랑 즉 온전한 성화는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주시고(이루시고), 우리는 경험한다. 그리고 살아야 한다.

4. 마치면서

4.1. 요약

1745년 8월 2일의 연회록 질문 23번에서 웨슬리는 “어디에서 우리는 칼빈주의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접근하는가?”라는 물음에 다음과 같이 답을 제시하고 있다. (1) 모든 선을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에 돌린다는 점에서, (2) 모든 자연적인 자유의지와 은혜에 선행하는 모든 힘을 부정하는 점에서, (3) 인간적인 모든 공로를 제외하는 점에서, 이는 하나님의

⁶¹ 후크마, 『개혁주의 구원론』, 327-29; 한영태, 『삼위일체와 성결』 (서울: 성광문화사, 1992). 이 책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결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논문이다.

⁶² 웨슬리, 『기독교 완전성에 대한 해설』, 121-22.

⁶³ 웨슬리, 『기독교 완전성에 대한 해설』, 44-45.

은혜에 의하여 인간이 가지거나 행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⁶⁴ 위에서 나타난 것처럼 칼빈주의와 웨슬리주의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접근하고 있는 복음주의 신학임에 틀림없다. 다만 서로의 관점과 입장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먼저 그들의 상이점은 신학의 중심주제가 다른데서 출발한다. 루터는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카토릭과 투쟁하였고, 칼빈은 루터의 업적을 수용하면서 구원자 하나님에 집중하였고, 웨슬리는 두 선배의 신학을 수용하면서 구원의 대상인 인간에게 관심을 집중하였다. 세 사람의 중심주제가 모이면 구원론이 완성된다, 즉 절대자 하나님은(칼빈) 자신이 정한 방식에 따라서(루터) 인간을(웨슬리) 구원하신다.

주의해야 할 것은 서로 다른 주제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바울서신(갈라디아서, 로마서)과 야고보서를 한 쪽의 잣대로 평가한다면 서로가 잘못이라고 비난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서신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다른 독자들을 대상으로 다른 차원의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둘 다 진리이며 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루터와 칼빈과 웨슬리의 신학도 이와 같이 이해해야 개신교회의 신학을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은 16세기 전제군주시대에서 하나님의 표상을 보았다면, 웨슬리는 18세기 서구의 계몽주의와 민주주의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보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그들의 신관과 인간관 그리고 구원론의 전개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요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자라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인간이 설 자리는 전혀 있을 여지가 없다. 이는 자연히 신 단동설로 그리고 예정론으로 귀결된다. 그 과정에서 작용하는 은혜 역시 달리 해석될 수밖에 없다.⁶⁵ 칼빈에게 구원의 은혜는 제한적이고 특수적이며, 웨슬리에게는 보편적이며 협동적이다. 그러나 칼빈이나 웨슬리 양자가 '오직 은혜만'으로의 개신교

⁶⁴ Work, VIII, 285.

⁶⁵ 윌리엄 케논, 남기철 역, 『웨슬리 신학』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1986), 48ff.

원리에 확고히 서 있음은 공통이다. 다만 시대적인 영향아래 은혜의 작용방법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권 안에서 인간에게 허용된 자유와 책임의 범위가 있다는 것은 양자가 모두 인정하지만, 칼빈은 구원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책임이 제외된다고 보는 반면에, 웨슬리는 일반적 섭리뿐만 아니라 구원에도 은총으로 회복된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예정론은 원래 구원의 확신을 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고, 그런 동기에 충실히 봉사하였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으로 얻는 칭의와 중생론 말미에 예정론을 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그 구원의 근원을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가르침은 엄청난 확신과 위로와 감사를 가져오게 마련이다. 그러나 구원의 경험 이전에 예정된 자와 아닌 자를 구분하려는 시도는 또한 엄청난 모순을 안고 있다. 웨슬리 당시나 오늘이나 예정론에 대한 논쟁은 이 점을 바로 구분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본다.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고백으로서 예정론은 훌륭한 신앙고백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칼빈도 예정론을 사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우리의 사고 수단으로써 예정론을 파악하려는 모든 시도는 무익하고 위험한 것이라고 한 것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⁶⁶ 웨슬리가 구원의 확신의 도리로 가르친 영의 증거(성령의 직접증거와 우리 영의 간접증거)에 칼빈의 예정론을 포함한다면 확신론은 더욱 확실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성화(성결)의 도리에 대하여 점진적 성화까지는 두 신학자가 일치한다. 다만 완전성화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으나, 완전성화를 목표로 하는 점은 일치한다. 완전성화가 죽음 이후나 현세에서나 서로 다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교리가 아니라 성도로서의 삶이기 때문이다. 완전성화를 목표로 은혜 가운데 추구하면 성령세례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사랑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결이다. 점진이든 순간이든, 내세든 현세든 하나님

이 이루시는 은혜의 사역임을 믿고 사모하면 하나님은 정한 때에 우리를 온전히 성결케 하실 것이다.

4.2. 제언

모든 신학은 하나의 신학이지 절대적인 신학이 될 수 없다. 자기의 신학이나 교리를 절대화할 때 교조주의가 나타나며 독선의 위험이 도사린다. 기독교의 기본원리나 교리에 일치한다면 의견의 차이는 서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날 신학 상호간에 교차적인 영향이 점점 커져간다는 사실이다. 웨슬리적-칼빈주의자(Wesleyan-Calvinist) 또는 칼빈적-웨슬리안(Calvinistic-Wesleyan)이 나타나는 현상이 이를 잘 보여준다.⁶⁷ 이에 대하여 와일리는 “오늘날 칼빈주의로 간주되는 것은 칼빈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아르미니안화 되었다. 오늘날 이 나라(미국)에 있는 장로교주의는 아르미니안화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다...오늘날 칼빈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⁶⁸라고 하였다.

한국에서도 1907년 대부흥운동을 통해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회가 알미니안적 칼빈주의(Arminian Calvinism)화 되었으며, 전통적인 칼빈주의의 구원론(흔히 TULIP으로 표현됨)을 극복하고 신학적으로 유연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유연성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교지향적인 한국교회의 특성이 형성되었다는 흥미로운 분석이 있다.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전통주의적 칼빈주의에 기초한 구원론을 극복하고 “알미니안적 칼빈주의”라는 신학적 유연성을 획득했고...전통적인 칼빈주의의 편협하고 제한적인 구원론을 극복하고...부흥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감정적 선택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신학적 유연성을 획득했다.⁶⁹

67 와인롭, 『칼빈주의와 웨슬레 신학』, 74쪽.

68 와인롭, 『칼빈주의와 웨슬레 신학』, 71에서 재인용.

69 김상근, “1907년 평양대부흥 운동과 알미니안 칼빈주의의 태동: 한국교회의 선교운동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6집 (2006): 401-402.

또한 1907년의 대부흥 운동에 대하여 런던 타임즈의 세실 경은 이 운동은 웨슬리의 일기에 나오는 부흥운동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흡사한 웨슬리적 부흥운동이라고 해석하였다.⁷⁰ 한국 장로교회의 이러한 유연성은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에게서도 발견된다. 그는 “썩썩 소리지르는 감리교도”(a roaring Methodist)⁷¹, “장로교 선교부의 감리교 설교가”(the Methodist preacher of the Presbyterian Mission)⁷²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감리교 스타일의 선교사였다.

웨슬리의 ‘관용의 정신’은 서로 다른 신학 사이의 논쟁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를 보여준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 “관용의 정신”(Catholic Spirit)에서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⁷³고 하였다. 이어서 “이 말은 ‘내 의견에 동의하라’는 뜻이 아니며...그렇다고 ‘내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겠다’는 뜻도 아닙니다...당신이 내 의견에 가까워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내가 당신의 의견에 가까워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하여 논쟁하고 싶지도 않고 어떤 말을 듣거나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모든 의견은 그대로 두고 단지 ‘나와 손을 잡자’는 것입니다”⁷⁴고 하였다. 웨슬리가 말하는 관용의 정신은 바로 사랑이며, 사랑의 정신으로 함께 손을 잡고 주의 일을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웨슬리는 헛필드와의 예정론 논쟁에 대해서도 “그러면 서로 의견이 다른 것으로 합의하자(agree to disagree)”⁷⁵고 말하고 화해할 수가 있었다.

복음주의 개신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먼저 자기의 신학적 입장을 분명

70 백락준, 『한국개신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3), 390-91.

71 Lillias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Co. 1918), 71; 송길섭, 『한국신학사상사』, 40에서 재인용.

72 *Korean Repository*, No. 5 (1988): 257,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증보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5), 164에서 재인용.

73 *New Works* II: 82.

74 *New Works* II: 89.

75 *New Works* II: 522.

히 하고, 그 위에 확고하게 서야 한다. 자신이 속한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며, 그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과 목회철학이 확립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단은 신앙과 신학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이는 목회윤리에 해당한다.

이 말은 나와 다른 신학을 배격하거나 비난하거나 심지어 정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웨슬리는 칼빈주의자나 아르미니안 설교자는 1) 칼빈주의자나 아르미니안이란 말을 비난의 용어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2)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⁷⁶ 우리는 웨슬리의 관용의 정신이나 신학적 유연성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신학적 대화를 통하여 서로의 신학의 폭과 깊이는 더해 갈 것이며, 이는 한국신학의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신학은 하나님의 신비를 조금씩 밝혀가는 작업이다. 하나님은 무한하나 인간은 유한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유한이 무한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제한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결국 모든 신학이 다 모아져도 하나님의 신비를 완전히 캐낼 수 없지만,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신비를 한 부분씩 밝혀가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상대자인 인간은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우리의 겸손한 신학작업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성령의 조명이 자신의 신학작업 위에 비취기를 기도하면서!

참고문헌

1. 한국도서

- 김상근. "1907년 평양대부흥 운동과 알미니안 칼빈주의의 태동: 한국교회의 선교운동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6, 한국기독교학회 (2006).
-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김재성. 『개혁신학의 광맥』.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1.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증보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5.
- 백락준. 『한국개신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3.
- 송길섭. 『한국신학사상사』.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 유해무. 『개혁교의학』.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 이오갑. "칼빈의 신중심주의와 한국교회". 『한국조직신학논총』 23, 한국조직신학회 편 (2009).
- 조대준. 『「크리스찬의 성화」』. 쿨란출판사, 2004.
- 조종남. 『요한 웨슬레의 신학』. 대한기독교출판사, 1994.
- 지원용. 『부터와 종교개혁』. 킨콜디아사, 1972.
- 한국웨슬리학회 편. 『웨슬리 설교전집 6』.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_____. 『존 웨슬리 논문집 I』. 한국웨슬리학회, 2009.
- 한영태. 『삼위일체와 성결』. 성광문화사, 1992.
- Korean Repository* No.5, 1988.

2. 번역도서

- 루이스 펠콕. 고영민 역. 『펠콕 조직신학』 제5권, 구원론. 기독교문사, 1981.
- 윌리엄 케논. 남기철 역. 『웨슬리 신학』. 기독교대한감리회, 1986.
- W. Gary Crampton. 박일민 역. 『칼빈의 신학』. 도서출판 그리심, 2003.
- 멜빈 디이터 편. 김원주 역. 『성화에 대한 다섯 가지 견해』.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1.
- 후스토 L. 곤잘레스 이형기·차종순 역. 『기독교사상사(III)』.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9.
- 윌리엄 M. 그레이트하우스 김용련 역. 『웨슬리신학 원류』. 생명줄, 1987.
- 언토니 A. 후크마. 류호준 역. 『개혁주의 구원론』.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0.
- A. E. 맥그래스 박종숙 역. 『종교개혁 사상 입문』. 성광문화사, 1992.
- 도날드 K. 맥킴 외 공편. 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칼빈에 관한 신학논문』. 기독교문화협회, 1986.
- 빌헬름 니이젤.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1999.
- _____ 이종성·김향안 역. 『비교교회론』.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 R. R. 파머, J. 콜튼 공저. 강준영 외 공역. 『서양근대사』 2-계몽사상에서 민주국가의 발전까지-. 도서출판 삼지원, 1988.
- William A. Scott. 김쾌상 역. 『개신교 신학사상사』.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 D. 스틸, C. 토마스 공저. 김남식 역.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한국성서협회, 1975.
- John Wesley. 조종남 역. 『웨슬레의 기독교자 완전에 대한 해설』. 한국복음문서간행회, 1996.
- 밀드레드 와인콕. 한영태 역. 『칼빈주의와 웨슬레신학』. 생명의 말씀사, 1987.
- W. 워커. 강근환 외 역. 『세계기독교회사』. 대한기독교서회, 1975.

3. 외국도서

- Bainton, Roland H. *Here I Stand*. New York & Nashville: Abindon-Cokesbury Press, 1950.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II, III, IV.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5.
- Cell, G. C. *The Rediscovery of John Wesley*. Henry and Holt Co, 1935.
- Cox, Leo. *John Wesley's Concept of Perfection*.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1968.
- Jackson, Thomas. *The Works of John Wesley*, 14vols. London: Wesleyan-Methodist Book-Room, 1831, Vol. VI, VII, VIII, X.
- Outler, Albert C. *The Works of John Wesley*, Nashville: Abingdon Press, 1985, The Bicentennial edition. Vol. II, III.
- Underwood, Lilius H. *Underwood of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Co., 1918.
- Williams, Colin. *John Wesley's Theology Today*. London: Epworth Press, 1960.

Abstract

Theological Dialogue between Calvin and Wesley

Han, Young-Tae

With lutheran theology, calvinistic and wesleyan theology hold fast to the principles of the Reformation, that is 'only grace', 'only faith', 'only Bible'. In Korea, calvinistic and wesleyan theology are two pillars of protestant theology because Korean church is consist of calvinistic presbyterian church and wesleyan methodist and holiness church in terms of membership. Both Calvin and Wesley have the principle of salvation, that is 'we are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But as Wesley points out, even though that is 'within a hair's breadth', there are some different points in them. They disagree with each other to the operating way of God's grace for our salvation.

Luther fights against catholic church for the way of salvation, after accepting Luther's 'three only principles', Calvin focuses on the 'redeemer God', and Wesley, after accepting Luther's and Calvin's points, emphasizes man as the object of salvation. Thus the three great leader's idea completes the soteriology of protestant theology, that is, absolute God (Calvin) saves man (Wesley) according to the biblical way (Luter). For the wholistic protestant theology we need the eye of synthetic understanding of those three protestant fathers.

Every theology is a theology, not the theology. Therefore evangelical theologians must not be arrogant of his theology and at the same time denounce or judge other theology which is different from his own. As

far as we agree to the fundamental doctrines, we must accept the mere differences of opinions.

Key-Words : absoluteness of God, free will of man, common grace and prevenient grace, predestination, santification